

## “제주와 함께라면 원팀·첫 우승 OK”

제주로 돌아온 중원사령관 ‘윤빛가람의 꿈’

“프로무대 첫 우승 간절한 소원 득점왕 주민규 스타일 잘 알고 최영준·이창민과도 시너지 기대 올시즌 제주, 우승 가능한 전력 선수들과 푹푹뭉쳐 원팀 만들것”



2022시즌 K리그1(부) 챔피언을 노리는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단 개편작업의 마지막 퍼즐은 중원이었다. 리그 정상급 측면전력에 비해 약한 미드필드를 보강하지 않고서는 남기일 감독이 추구하는 ‘찬스를 많이 만드는 축구’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K리그 정상급 플레이 메이커인 윤빛가람(32)을 울산 현대에서 데려오기로 방침을 짰다.

울산으로 떠난 2년 전에는 제주의 K리그2(2부) 강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부름을 받은 올해는 K리그1 우승을 향한 의지로 가득하다. 윤빛가람은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나를 향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무조건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팀을 하나로 잘 뭉치게 해서 정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 ●힘들 때나 좋은 때나 제주!

2010년 경남FC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윤빛가람은 선수 커리어의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제주를 택했다. 유럽 진출이 좌절된 뒤 성남일화(현 성남FC)를 거쳐 2013년 제주에 입단한 그는 3시즌 동안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났다. 특히 2015년에는 데뷔 후 최다인 13개의 공격포인트(6골·7도움)를 쌓았다. 병역을 해결해야 할 2017년 여름에도 연봉 푸더(중국)에서 제주로 이적한 뒤 상주 상무(현 김천

상무)로 입대했다.

“제주는 내가 힘들 때나 좋았을 때나 항상 불러줘서 감사하다”는 그는 “가장 오래 뛰었던 팀이라 편하지만, 마냥 편한 생각을 갖고 뛰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팀으로서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제주도 생활에 익숙한 윤빛가람이지만, 제주라는 팀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현대기’ 양강 구도를 켤 수 있는 유력 후보로 거듭나고 있다. 그는 “울산에 있을 때 제주를 상대해봤는데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다”며 “올해 선수단에 큰 변화가 없고, 새로운 선수들도 들어와서 나 스스로도 기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에서 가능한 자신감

윤빛가람에게선 우승을 향한 간절함과 자신감이 뚝뚝 묻어났다. “개인 커리어에서 아직 우승이 없다. 개인적으로 우승이 간절하다”면서도 “제주는 이미 수비조직력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다. 미드필드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동계훈련 동안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우승경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중원과 최전방의 조화가 그 근거다. 윤빛가람은 필두로 최영준, 이창민이 구축할 중원은 K리그 최고 수준이다. 전방에는 2021시즌 득점왕 주민규가 버티고 있다. 윤빛가람은 “주민규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최영준과는 경남, 이창민과는 과거 제주에서 함께 뛰어봤다”며 “각자 역할을 잘 알고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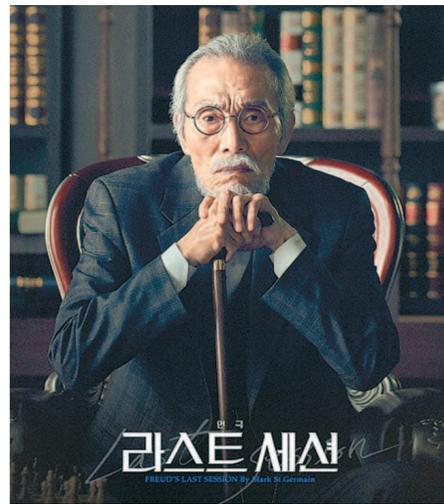
그는 “제주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쉽게 이를 순 없겠지만, 하나로 푹뭉쳐서 준비하겠다”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팬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윤빛가람은 이번 겨울 울산을 떠나 제주로 동지를 옮겼다. 리그 정상급 플레이메이커로 꼽히는 그를 영입하면서 제주는 팀의 최대 취약점을 최대 강점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다. 2022시즌 전북-울산의 양강 구도를 허물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한 제주의 키를 잡은 그는 “동계훈련 동안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우승경쟁을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제공 | 제주 유나이티드



배우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 수상 이후 출연 중인 연극 '라스트 세션'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파크컴퍼니

## 오영수 출연 연극 매진 행렬 ‘골든글로브 파워’ 대단하네

‘라스트 세션’ 판매 사이트 11회차 모두 매진  
수상 하루만에 티켓 판매량 45% 압도적 1위

### ‘골든글로브의 파워’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오영수(78)가 놀라운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오영수는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를 뒤로하고 7일부터 서울 대학로 TOM 1관에서 연극 ‘라스트 세션’에 출연 중이다. 10일 골든글로브 수상 후에도 다음날 열리는 ‘연극 연습에 집중해야 한다’며 쇄도하는 축하 전화를 한사코 거절했다.

11일 연이어 오영수의 수상 소감과 외신들이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배우”라고 집중 조명하자 그가 출연하는 공연 티켓 판매가 급증해 눈길을 끈다.

이날 ‘라스트 세션’을 단독 판매하는 티켓 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오영수가 출연하는 11회차 공연이 매진됐다. 또 다음 달 출연하는 17회차 공연도 80% 이상 팔렸다.

연극을 제작하는 파크컴퍼니 박정미 대표는 “오영수 씨의 골든글로브 수상 직후 공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날 공연이 매진됐다”며 “예상대로라면 다음 달 공연도 이날 매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스트 세션’은 다른 연극과 비교해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한다. 현재 인터파크 연극 부문 1위다. 오영수가 수상하기 전인 9일 3위에서 하루 만에 두 계단이나 상승해 1위를 지키고 있다. 판매 비율도 9일 10.9%에서 10일 55.3%로 올라섰고, 이날도 44.9%이나 차지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개막한 연극 ‘리처드 3세’의 주연을 맡은 톱스타 황정민도 누려보지 못한 판매량(10.4%)이다.

‘라스트 세션’은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1939년 9월8일을 배경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C.S.루이스가 만나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다. 오영수는 선배인 신구와 함께 프로이트 역할에 더블 캐스팅됐다.

1963년 극단 광장 단원에 들어가면서 연기를 시작한 그는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해왔다. 지난해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섰던 무대, 연극으로 돌아갔다.

그는 당시 ‘라스트 세션’ 기자회견회에서 “갑자기 부각되니까 광고와 일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며 “배우로서 가지고 있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혼란스러웠다. 연극 연습하면서 다행히 평심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검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